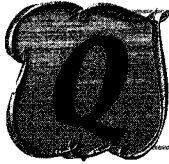


알고 싶어요



사이버 성 상담실 www.yline.re.kr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는 사이버 성 상담실(www.yline.re.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에 대한 고민이나 궁금증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에이즈(AIDS)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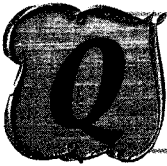


에이즈의 증상은 환자마다 다릅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잦은 설사에 열이 계속되고, 피로감을 느끼며 10% 이상의 급격한 체중감소가 따릅니다. 또 임파선이 부어오르고 카포시 육종이라는 피부암, 폐렴 뇌막염, 기억상실, 정신분열, 발작, 혼수상태 등으로 진전되어 죽음에 이릅니다.

에이즈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한다고 해서 곧바로 발병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이즈의 감염여부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혈청반응이 양성으로 나왔다는 것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대개 3~5년간 아무 증세가 없기 때문에 균은 있지만 증세는 없는 상태(보균자)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에이즈는 전염경로가 단순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으면 예방이 가능하며 예방만이 최선책입니다.



에이즈(AIDS)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떠한 주의를 해야 하나요?



에이즈는 동성 또는 이성간의 성교를 통해 전염되며 감염된 혈액 또는 혈액제재를 투여하는 주사기나 주사 바늘의 공동 사용 등을 통해서도 전염되고 감염된 여성이 임신했을 때 태아에게 전염됩니다.

사람들은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와 악수만 해도 옮을까 봐 걱정을 합니다. 또한 모기와 같은 곤충을 매개로 하거나 공기나 의복의 공동 사용으로 감염될까봐 두려워하는데 이것은 근거없는 우려일 뿐입니다. 에이즈 바이러스는 인체 밖에서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에이즈 전파 물질은 혈액, 정액, 질 분비물 등 3가지이며 주로 성기, 항문, 입, 상처난 곳, 주사 바늘 등을 통해 감염됩니다. 따라서 감염된 사람과 성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성적인 접촉 상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성적 접촉 방법에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즉 성교할 때 체액 교환을 피하고 성교시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합니다. 콘돔을 사용해도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항문 성교나 입을 이용한 성행위는 극도로 위험합니다.

혈액 수혈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즉, 피부나 점막에 상처가 났을 때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이 묻으면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이나 옷에 피가 묻으면 이를 빨리 씻어 내며, 면도기나 칫솔 또는 수건과 같이 피가 묻기 쉬운 일용품들은 자기 것만 사용하고 주사 바늘의 공동 사용은 피합니다. **PPFK**